

## 청소년의 방과후학교 플루트 지도에서 리듬학습 방안\*

노시진·조정은  
(조선대학교)

### Rhythm learning Method on teaching how to play the flute after school for teenagers

Sijin Noh·Jungeun Cho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cknowledged the need for ability to read music for students to play instruments in after school flute classes. To this end, this study intends to create student participation and activity based instruction of the element knowledge of music as reading notes, rhythm, and, key using Kodály's teaching method. This study reviewed precedent studies on Kodály's musing teaching metho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Kodály's teaching method in depth to suggest mus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instructing flut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eaching · learning guidance are as follows.

First, class participation was increased by helping students to learn rhythm easily and enjoyably using rhythm syllables, beating rhythm, and rhythm games. Also, it was identified that sense of rhythm of students improved through various rhythm activities. Secondly, interesting and new teaching methods of hand signal song, guessing hand signal, and playing by looking at hand signal of teacher were conducted for hand signal. Thirdly, the movable-do system helped students to learn easily through games. Students learned the concept of notes and built ability to read music through the movable-do system. Fourthly, this study used flying notes for students to learn notes, and was helpful in understanding line and fret on manuscript paper.

**Keyword:** Kodály, Flute, after-school

---

\* 이 논문은 2017년 노시진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경험했던 다양한 예술활동을 발전시켜 자신의 특기나 취미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시기이다. 졸탄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는 음악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인 변화가 커서 음악과 같은 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음악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예술 활동은 대부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의 음악적 경험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학교음악교육의 현실은 초등학교에서 익힌 악기교육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입시교육에 내몰려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악을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음악교육자 코다이는 민요를 통해 모국어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음악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솔페즈(Solfège)<sup>1)</sup>를 중요시 하였다. 또한 코다이는 음악을 쉽게 접하도록 손 기호와 신체 기호 등 몸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즐거운 음악과 생활에서의 음악을 강조하였다.

한편, 방과후학교의 음악교육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학교교육의 지향점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초등학교(99.8%), 중학교(99.6%), 고등학교(99.7%)의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6). 그 중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초등학교(73.4%), 중학교(41.5%)로 청소년의 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교육부, 2016), 학생 개개인의 특기를 계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하나인 ‘학생오케스트라’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으로 인하여 악기교육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악기를 제공하는 경우 목관악기인 플루트를 희망하는 학생 수도 늘어가고 있다.

방과후학교에서 플루트 교육을 위해서는 악보 읽기 능력이 필요한데, 악기를 배우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악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기초 이론에 빈약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음악교육은 악기 연주에 필요한 이론을 따로 지도하거나, 음악 수업시간이 이론적 교육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피아노를 배우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한 음악 이론을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악기연주를 위해 방과후학교에서 악기를 배우고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이 전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

1) 솔페지오(Solfège)는 서양 음악의 학습에서 악보를 읽는 것을 중심으로 한 기초 훈련이다(출처: 위키 백과사전). 보통 음정훈련이나 계명창으로 시창·청음 학습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방과후학교 악기교육에서는 음악적 문해력 즉 계명, 음정, 리듬 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플루트 교육을 위하여 코다이 음악교수방법 중 청소년의 악기교육에 적합한 방법을 추출하여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플루트 지도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학교에서 플루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음악활동 중심의 악기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코다이 교수법 중 플루트 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실제 악곡에 적용하여 음악적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 쉽게 플루트 연주를 하도록 지도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과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방과후학교 플루트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지도하기 위하여 코다이 음악이론을 기초하였다. 그의 여러 가지 교수방법 중 플루트 지도에 필요한 <리듬 음절>,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를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플루트 초급을 기준으로 구안하고자 하였으며, 초급은 보통 플루트를 3개월 미만 배운 학생들로, 1옥타브 '파'부터 2옥타브 '도'까지 운지법을 배운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 3. 연구의 문제

첫째, 플루트 지도에서 <리듬 음절>의 학습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플루트 지도에서 <이동도법>의 학습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플루트 수업에서 <날으는 음표>의 학습효과는 어떠한가?

##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악기지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음악교육자 코다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지도 방안에서는 초급이라 하더라도 악기의 구조, 플루트 운지법 등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거론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학교로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악기교육이 대부분 개인레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그 변화에 주목하였다.

넷째, 플루트 지도에서 발생하는 리듬, 음표를 통한 음악적 이해에 대한 차이만을 관찰하였으며, 그 외 선율의 표현이나 소리 등은 논하지 않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코다이 음악교육의 원리

코다이의 교육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숭고한 음악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악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민경훈 외, 2013, p.250). 또한 음악은 인격 형성에 중요하며, 모든 어린이들은 음악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페스타로치(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교육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코다이의 이론은 음악을 익힐 때 어린이가 모국어를 익혀가듯이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과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도 가르쳐야함을 강조하였다.

코다이가 강조한 음악원리의 핵심은 첫째,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 (민경훈외, 2013, p.237)라고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이 음악을 즐기고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요는 가장 기본적인 가창 재료이다” (조흥기, 2004, p.56). 코다이는 민요를 음악적 모국어라고 불렀다. 자기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민요는 억양과 정서가 익숙함을 의미할 것이다.

셋째, 코다이 교수방법의 핵심은 노래 부르기이다.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준 간편한 악기로 노래 부르기를 통한 교육이 강조된다. “음악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이라는 것은 오래된 진리이므로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기 전에 악보 보고 부르기부터 배워야 한다”(임미경 외, 2010, p.73).

넷째,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청음과 감상력이 최대한 발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격적인 음악교육은 유치원부터인데 아이들에게 음악적 기초를 일찍 학습하게 하면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다섯째, 모든 인간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듯이 음악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문화 수준이 높아지려면 문맹이 퇴치되어야 하듯이 음악적 교양이 있어야 음악 문화가 발달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음악을 연주할 때 몸의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간단한 손뼉 치기나 두드리기 등을 통해 리듬을 익히고 감각적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2. 코다이 음악 이론을 기초한 교수방법

#### 1) 리듬 음절

리듬은 음악의 3요소(가락, 화성, 리듬)중 가장 작은 단위 또는 핵심요소로써 음악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리듬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듬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일찍 학습되어야 한다. 리듬 이름은 프랑스인 슈베에 의해 고안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리듬 교육을 위해서는 리듬의 이름을 정해주면 좋다. 음에도 각각 계이름과 음이름의 이름이 있듯이, 리듬도 그 길이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주면 리듬 체계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훨씬 편리하다” (조흥기, 2004, p.134). “코다이 리듬 음절은 ‘리듬, 음가, 음절’의 방식으로서 음표에 음가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타’, ‘티티’, ‘트리올라’ 등 다양한 리듬 음가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리듬과 박에 대한 예리함과 리듬을 읽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박혜선, 2009).

<리듬 음절>을 배울 때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걷는 속도와 비슷한 4분음표 리듬 꼴을 먼저 배우고, 4분음표와 8분음표 그리고 4분섬표 리듬 꼴을 연습하며, 2분음표, 싱코페이션, 점2분음표, 온음표 순서대로 연습한다. 박자는 2/4박자를 4/4박자보다 먼저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헝가리 어린이 동요에 2/4박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쉬운 박자부터 어려운 박자 순으로 되어있다.

## 2) 손 기호

<손 기호>는 원래 귀도 다레초가 계이름을 만들 때 손바닥 마디의 여러 가지 모양을 응용하였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영국의 커웬이 <손 기호>의 원형을 완성하여 사용하다가 코다이에 의해 음악적 기능을 덧붙여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손 기호>는 특히 초보자를 위해 음 높이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며, 어려운 음정을 가르치는데 적절한 것으로 손의 높이와 모양을 통해서 공간에 음높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조흥기, 2004, p.63). 그리고 <손 기호>를 통해 음을 소리로 듣거나 부르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코다이의 <손 기호>는 허리에서부터 이마까지를 동작범위로 하는데 허리 높이에서 손 기호를 하는 으뜸도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그 위치를 높여가며 옥타브는 위쪽까지 올라간다. <손 기호>는 음 높이 뿐만 아니라 음감에 대한 감각, 계명창, 내청 그리고 음정 연습이나 어려운 음정을 가르치는데 유용하다.

## 3) 이동도법

코다이 교수방법에서는 <이동도법(Tonic sol-fa)>을 사용한다. “코다이(Kodaly) <이동도법>의 시창법은 ‘귀도(Guido)’의 계명과 ‘커웬(Curwen)’의 으뜸음 솔파 체계(Tonic Sol-fa System), 그리고 ‘슈베(Cheve)’의 숫자보, ‘훈데거(hundagger)’의 Tonic Do법 등이 재정립된 것으로 조옮김이나 조바꿈의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박혜선, 2009). 코다이는 자신의 교수방법을 ‘솔파지도법’이라고 불렀다. “<이동도법>은 움직이는 ‘도’를 사용하는데 움직이는 ‘도’란 조가 이동할 때마다 으뜸음 ‘도’의 위치를 바꿔서 계이름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b장조의 도는 Eb, G장조의 도는 G, B장조의 도는 B등이 된다. <이동도법>은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절대 음을 배우기 전부터 시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조의 특성을 알아내거나 음악적 화성 구조 등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동도법>은 학생들이 정확한 피치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조흥기, 2004, p.66).

“계이름은 11세기에 귀도 다레초의 작품에서 비롯되었다. 음절의 Ut는 17세기에 Do(도)로, Si(시)는 17세기 말에 일곱 번째 음으로 나왔다. 헝가리에서는 Sol(솔)대신에 Soh(소)라고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So(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곱 번째 음인 Si(시)는 다섯 번째 음 So(소)와 첫 글자가 동일했다는 이유로 Ti(티)로 바꾸었다. 반음 올린 음은 끝음을 i로 나타내고, 반음 내린 음은 끝음을 a로 표기한다” (임미경 외, 2010, p.75).

#### 4) 날으는 음표

<날으는 음표> 역시 슈베가 고안한 ‘움직이는 막대기’를 변형한 것으로 긴 막대기 끝에 음표의 머리를 붙여 놓고 칠판의 오선 위에서 막대기를 움직여 음을 읽게 하는데 사용한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오선보를 크게 그려 사용하며 오선보 없이도 공간상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2선보나 3선보 등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는 즉흥적으로 가락을 만들어 노래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도법으로 노래하게 할 수 있다.

#### 5) 손가락 기호

코다이 교수방법에서 손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손가락 기호는 왼손의 다섯 개의 손가락을 오선을 대신해 보여주는 것으로 계명창을 훈련할 수 있다. 손가락은 오선의 선이 되고 손가락 사이는 칸이 된다. 손가락 기호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오선보의 다섯째 줄이고, 새끼손가락이 첫째 줄을 가리킨다. 손가락 기호는 정확한 음 높이를 소리로 나타나게 가르칠 때 사용한다.

손가락 기호를 보고 계이름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면 장음정과 단음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음 계단, 음 사다리, 음 기둥을 통해 온음과 반음의 간격을 이해시키고, 손가락 사이가 떨어지면 온음, 손가락 사이가 붙으면 반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손가락 3개를 이용하여 온음과 반음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5도 음정을 표시할 수도 있다.

‘도 - 솔’을 나타내려면 다섯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응이 되는 미(검지)와 파(중지)는 붙이고 나머지 온음은 벌리도록 한다. ‘레 - 라’는 반응인 미(약지)와 파(중지)를 붙이고 나머지 온음은 벌리도록 한다. ‘시 - 파’는 시(소지)와 도(약지) 그리고 미(검지)와 파(엄지)를 붙이고 나머지 온음은 벌리도록 한다.

#### 6) 음 계단, 음 사다리, 음 기둥

음 계단, 음 사다리, 음 기둥 모두 온음과 반응을 보여주므로 소리의 높이와 음 간격을 지도할 때 사용한다. 세 가지를 그럴 때는 온음과 반응을 잘 나타내 학생들이 음에 대한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7) 내청 훈련

내청(Inner hearing)이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소리를 말한다. 코다이가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음높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코다이 교수방법에서 내청 훈련은 정확한 음감을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내청 훈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노래 숨기’이다. 이 방법은 어린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교사가 신호를 하면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만 부르고 교사가 두 번째 신호를 하면 어린이가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이다. 어린이가 내청 훈련을 어려워할 경우 그 어린이는 내청 시간 동안에 노래의 박에 맞추어 걷는다거나 리듬을 손뼉으로 치게 하는 것도 좋다” (임미경 외, 2010. p.79).

이러한 듣기의 과정은 소리에 대한 집중과 음이나 박자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6일부터 2017년 4월7일까지 총 5주 동안 이루어졌다. 코다이 음악이론을 중심으로 <리듬 음절>, <손 기호>,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를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구안하였다. 제재곡은 <나비아>, <작은세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레슨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를 악보를 통하여 작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개의 학교로 H군에 위치한 D초등학교와 D중학교, S중학교로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3명으로 총 20명(남:5명, 여:15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즉 실험 집단인 20명의 학생은 코다이 음악이론을 적용하여 플루트를 지도하였고, 비교 대상인 일반학생은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10명으로 하여 총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3. 연구 내용

청소년 악기 지도를 위하여 <리듬음절>,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 등의 음악이론 중심의 수업과 일반 플루트 수업을 진행한 후 악기 연주와 악보읽기 등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V. 방과후학교 플루트 지도 방안

## 1. 방과후학교 플루트 지도 방향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학교에서는 사춘기의 정서와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맛 보게 함이 중요할 것이다. 플루트 수업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루트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운지법과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 할 수 있다.

둘째, 악곡을 통한 연습으로 주선율과 음정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음악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인해 지구력을 길러준다.

셋째, 악기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넷째,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협연함으로써 협동심과 배려심,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 2.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플루트 지도 요소

코다이 음악교수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검토한 결과 플루트를 지도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리듬 음절>, <손 기호>,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의 구성 요소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플루트 지도에 활용할 것이다.



1) 리듬 음절의 활용

“달크로즈 교수법의 유리드믹스처럼 코다이 교수법에서도 리듬 학습에서는 걷기, 뛰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손뼉 치기 같은 신체 동작을 많이 사용하여 리듬감을 체득하게 한다” (임미경 외, 2010, p.85~86). 리듬 학습의 초기에는 다양한 신체동작과 그림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리듬 음절>의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Kodály식 기보	전통적 기보	음악 음절	Kodály식 기보	전통적 기보	음악 음절
		따/타			리탐
		띠띠/티티			띠따 띠/티타 티
		트리올라			리띠리/리티리
		띠리리리/티리리리			따아/타아
		띠 띠리/티 티리			따아아아/타아아아
		띠리 띠/티리 티			쉽
		탐 리			쉬

그림 1. 홀박자 계에서 리듬 이름 읽기 (출처: 조흥기, p.62~63).

(1) 일정 박

교사는 일정하게 박수를 치며 학생들에게 박수에 맞춰 고개나 몸을 좌우 또는 상하로 흔들게 한다. 학생들이 일정하게 몸을 움직이면 4분음표 리듬 음절인 ‘타’를 알려주고, 학생들은 신체동작을 하면서 박수에 맞춰 ‘타,타,타,타’를 말한다. 교사는 일정 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아는 노래 (예: 작은 별, 학교 중)를 부르면서 일정 박으로 손뼉을 치거나 걷게 하여 일정 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4분음표와 쉽표

교사는 일정하게 박수를 치다가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의부분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쉽표를 뜻하며, 4분쉽표 리듬 음

절을 ‘쉽’이라고 알려준다. 다시 악보를 보며 4분음표에는 ‘타’라고 말하면서 손뼉을 치고, 4분쉽표에서는 ‘쉽’이라고 말한다.

(2) 4분음표와 8분음표

교사는 학생들에게 8분음표 두 개가 모이면 4분음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8분음표 리듬 음절인 ‘티티’를 알려준다. 4분음표를 ‘타’라고 하고 8분음표는 ‘티티’라고 부르면서 일정한 박에 맞춰 손뼉을 친다. 그리고 교사는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섞여 있는 노래(예: 주먹 쥐고, 시계)를 부르고, 학생들은 노래의 리듬을 손뼉 치기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부르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학생들은 ‘타’와 ‘티티’를 말하면서 손뼉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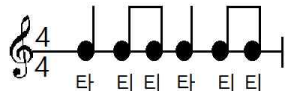


그림 3. 4분음표와 8분음표

(3) 4분음표와 16분음표

교사는 학생들에게 4분음표에는 박수를 한 번, 16분음표에는 박수를 네 번 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 박을 넷으로 나눈 리듬이 16분음표라고 설명하고 ‘티리리리’라고 알려준다. 학생들은 4분음표에는 ‘타’라고 부르고 16분음표에는 ‘티리리리’라고 부르면서 손뼉을 친다.



그림 4. 4분음표와 16분음표

(4) 셋잇단음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박이 셋으로 나뉜 것이 셋잇단음표라고 알려주고 ‘트리올라(셋잇단)’ 라고 읽는다고 한다. 셋잇단음표를 리듬 음절로 읽으면서 손뼉을 친다.



그림 5. 셋잇단음표

2) 리듬연습 응용

(1) 리듬카논(Canon)

음악의 형식에서 카논은 개인의 리듬연습과 협연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리듬의 응용연습을 위하여 카논 매우 역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리듬을 치면 학생들이 한마디 뒤에서 따라 치는 방법이다. 리듬 “카논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음악을 암기하는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귀의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조흥기, 2004,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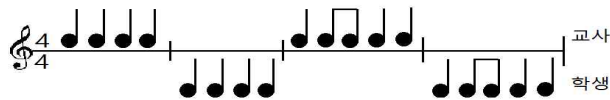


그림 6. 리듬 돌림 또는 카논

(2) 리듬 전달 게임

리듬학습의 감각을 위하여 먼저, 교사가 제시한 리듬을 앞사람 등에 리듬 치기를 한 후, 끝에 있는 사람이 리듬 이름을 말하게 한다. 또는 리듬 이름을 말하는 것 외에 칠판에 나와서 리듬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일정한 박으로 4분음표 4개로 된 리듬을 친다. 다음 한 학생이 교사가 친 리듬을 똑같이 친 다음 4개로 된 4분음표 중 하나를 8분음표 리듬으로 바꾸어 숫자를 하나씩 더 늘려나간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도 전에 학생이 친 리듬을 받아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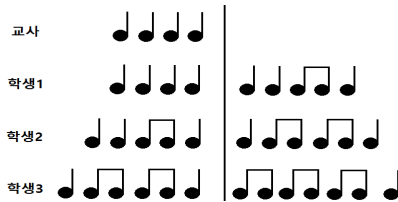


그림 7. 리듬 게임 응용

(3) 리듬 오스티나토<sup>2)</sup>

리듬학습에서 오스티나토는 리듬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리듬을 반복하도록 하고, 교사는 다양한 리듬을 리듬치기 해 본다.

2) 오스티나토는 “한 악곡을 연주하면서 한마디 혹은 그 이상의 길이로 된 리듬동기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임미경 외, 2010, p.163).



<작은 별>

도도솔솔 라라솔 파파미미 레레도  
 솔솔 파파 미미레 솔솔 파파 미미레  
 도도솔솔 라라솔 파파미미 레레도

악보 1. 작은별

3) 날으는 음표의 활용

<날으는 음표>는 악보읽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이나 오선악보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음높이를 지도하기에 적합하다. 즉 <날으는 음표>는 “학생들이 선율의 흐름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조흥기, 2004, p.132). <날으는 음표>의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한 줄 악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줄 악보부터 사용해서 음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한 줄 악보는 3도까지 음정을 익힐 수 있다. 교사는 <비행기>와 같은 곡을 <날으는 음표>로 지시하며 학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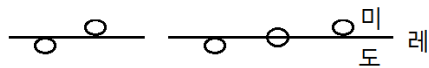


그림 11. 한 줄 악보

(2) 두 줄 악보

학생들이 한 줄 악보에 익숙해지면 두 줄 악보를 사용해서 음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학교 중>과 같이 익숙한 곡을 <날으는 음표>로 지시하고 학생들은 따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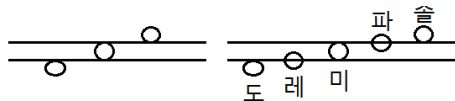


그림 12. 두 줄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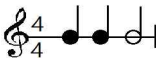

### 3. 리듬음절 플루트 지도의 유의점

청소년 악기 지도를 위하여 <리듬음절>,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 등의 플루트 수업을 진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리듬음절 학습

<리듬 음절> 학습에서는 제재곡 ‘나비아’, ‘작은 세상’, ‘연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재곡을 먼저 <리듬 음절>로 읽고, 리듬 치기를 하는 등 다양한 리듬 활동에서 정확한 연주를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슷한 음높이의 다른 길이의 음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표 1과 같이 먼저 ‘타, 타, 타아’를 ‘타, 타, 타, 썸’으로 리듬을 정확하게 읽은 후 연주하도록 한다.

표 1. ‘나비아’ 리듬학습

구분	바른 표현	틀린 표현
리듬		

제재곡 ‘작은 세상’에서도 <리듬 음절>로 읽고, 리듬 치기를 하는 등 다양한 리듬 활동을 한다. 그리고 <날으는 음표>는 음높이를 인지하여 계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아래와 같이 점리듬의 감각과 음길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표 2. ‘작은 세상’ 비교

구분	바른 표현	틀린 표현
계명	 미 라 시 도 시 라 레 도 시 라	 미 라 시 도 시 라 시 라 시 라
리듬		
음정		

2) <이동도법>

음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계이름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으뜸음을 이해하게 한다. 오선지에 으뜸음을 표시하는 연습에 익숙하도록 하고 플루트로 소리내게 한다.



그림 13. 계이름 읽기

3) <날으는 음표>

제재곡의 계명을 날으는 음표로 지시하여 학생들이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읽기 보다는 2마디씩 나누어 읽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반드시 음표 부분을 표시해 준다.



그림 14. 두마디씩 계이름 읽기

4.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플루트지도 적용 결과

코다이 음악교수법의 활용에서 <리듬 음절>,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를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 음절>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미있다(75%), 재미없다(0%), 어려웠다(5%), 보통이다(20%)로 응답하였다. 재미있다(75%)라고 응답한 학생이 어려웠다(5%)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리듬 음절>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러 가지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도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리듬 음절>해보니까 어땠어?”

학생: “원래는 리듬을 몰랐는데 연주하는데 뭔가 조금 더 하기 편했어요.” - 수업 후 김○○ 학생 -

둘째, <이동도법>의 결과에서는 재미있다(30%), 재미없다(0%), 어려웠다(55%), 보통이다(15%)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동도법>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35%), 그렇다(35%), 보통이다(25%), 아니다(5%)로 응답하여 이전보다는 계이

를 읽기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첫 번째(고정도법)랑 두 번째(이동도법)중에 어떤 것이 노래하기 더 편했어?”

학생: “두 번째가 조금 쉽고 익숙했어요.” -김○○ 학생 -

셋째, <날으는 음표>의 결과는 재미있다(75%), 재미없다(0%), 어려웠다(0%), 보통이다(25%)로 나타났으며, 학습한 후 연주가 가능하였다(85%), 계명을 전혀 몰랐는데 조금씩 구분할 수 있다(15%), 계명이 여전히 어렵다(0%)라고 응답하였다.

교사: “<날으는 음표> 배우니까 어땠어?”

학생: “쉬웠어요! 계름 읽는 것이 제일 싫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 강○○ 학생 -

다음은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제재곡에서는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초급에서는 ‘나비아’ 중급에서는 ‘작은세상’ 고급에서는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Eine kleine Nachtmusik)’으로 하여 계명, 리듬, 음정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표 13. ‘나비아’ 사전 비교<sup>3)</sup>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우수 <sup>4)</sup>	보통	노력	우수	보통	노력
계명	7명	·	·	3명	·	·
리듬	7명	·	·	1명	2명	·
음정	7명	·	·	3명	·	·

표 14. ‘나비아’ 리듬학습 비교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리듬		

3) 사전조사에서 실험집단의 참여자는 방과후학교의 플루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며, 비교집단은 일반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수업설계를 짜고 악곡선정을 하였다.

4) 집단의 수준을 표시하는 ‘우수’는 계명, 리듬, 음정을 대체로 잘 이해하는 경우이며, ‘보통’은 계명, 리듬, 음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미흡한 경우이다. 그리고 ‘노력’은 계명, 리듬, 음정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제재곡 ‘나비아’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 집단은 제재곡을 코다이의 <리듬 음절>로 읽고, 리듬 치기를 하는 등 다양한 리듬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리듬을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가 가능하였다. 비교 집단은 일반 지도를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제재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주가 가능하였지만 <표 14>와 같이 ‘타, 타, 타아’를 ‘타, 타, 타, 썸’으로 리듬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연주했다.

다음은 제재곡 ‘작은 세상’을 연주하였을 때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표 15. ‘작은 세상’ 사전 비교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우수	보통	노력	우수	보통	노력
계명	6명	1명	·	1명	1명	2명
리듬	5명	2명	·	·	1명	3명
음정	6명	1명	·	1명	2명	1명

표 16. ‘작은 세상’ 비교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계명		
리듬		
음정		

학생들은 계명을 읽고, 대체적으로 리듬을 정확하게 지키며 음정의 높이를 구분하여 연주가 가능하였다. 비교 집단은 표 16과 같이 오선보의 줄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레’를 ‘시’로 연주했고, 3옥타브로 올라가면 계명 읽는 것을 어려워했다. 리듬은 ‘타이티, 타, 타’를 ‘타, 타, 타, 타’와 같이 연주하였다. 음정은 3옥타브 ‘레’를 2옥타브 ‘레’로 연주하는 등 음정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연주하였다.

다음은 제재곡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Eine kleine Nachtmusik)’를 연주하였을 때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표 17.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사전 비교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우수	보통	노력	우수	보통	노력
계명	5명	1명	·	1명	1명	1명
리듬	4명	2명	·	·	·	3명
음정	6명	·	·	·	2명	1명

표 18.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비교

구분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실험 집단)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비교 집단)
계명	 <p>솔 레 시솔시레 솔레솔시 레 파</p>	 <p>솔 시 레시레파 솔레솔시 레 파</p>
리듬		
음정		

제재곡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 집단은 제재곡을 코다이의 <리듬 음절>로 읽고, 리듬 치기를 하는 등 다양한 리듬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계명을 읽고, 대체적으로 리듬을 정확하게 지키며 음정의 높이를 구분하여 연주가 가능하였다. 비교 집단은 표 18과 같이 학생들은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의 구분에서 혼돈이 있었고, 오선보의 줄과 칸의 위치를 어려워했으며 더듬거리며 읽는 모습이였다. 음정은 2옥타브 ‘레’를 3옥타브 ‘레’로 연주하는 등 음정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연주하였다.

## V. 결 론

본고에서는 청소년의 악기지도를 위하여 최근 대중성 있게 보급되고 있는 플루트 지도를 위하여 리듬학습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악교육자 코다이의 학습이론 중 리듬음절을 플루트 지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동도법, 날으는음표와 함께 지동 방안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플루트 지도에서 4개의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였고, 코다이 음악교수 방법 에서는 <리듬 음절>, <이동도법>, <날으는 음표>를 활용하여 플루트 수업에 적용한 후 두 집단 간의 음악적인 이해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에서 <리듬 음절> 학습의 효과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리듬음절의 이해가 높았다(80%). 학생들은 리듬 카드를 보며 리듬 치기와 리듬 돌림, 리듬 전달 게임 등을 통하여 플루트 수업을 흥미롭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여러 가지 리듬 게임 응용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집단은 코다이 <리듬 음절>을 활용함으로써 리듬감도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은 리듬음절의 이해도가 보통(30%)의 수준으로 나왔다.

둘째,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에서 <이동도법>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음정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도움이 되었으나(45%), 여전히 계림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55%). 그러므로 교사는 <이동도법>에 대해 그 원리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게임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에서 <날으는 음표> 학습의 효과는 음정의 이해도에서 효과적이었다(90%). <날으는 음표>는 제재곡의 계명을 익히기 전에 한 줄 악보, 두 줄 악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계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사는 학생들이 아는 노래를 <날으는 음표>를 사용하여 계명을 지시하면 학생들은 노래를 맞추고 <날으는 음표> 막대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게임을 하였다. 학습 후 학생들은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음악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날으는 음표>를 통해 학생들은 오선보의 줄과 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계명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비교 집단은 음정을 알 수 있는 정도가 50%로 대체적으로 악보에 어려움을 느껴 악기연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즉 실험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의 학생들이 계명 읽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은 코다이의 이론을 통한 교육방법이 음악을 이해하고 악기연주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종모, 서종우(2010)의 연구에서도 코다이 교수법과 주요 그 내용을 해석하였는데, 음악은 모두의 것이며 음악적 모국어 그리고 민요와 예술음악의 이념을 언급하여 ‘음악 읽고쓰기’는 미적경험을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악기지도에서 음악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접근과 전략이

적용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플루트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활동 중심과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흥미, 수업의 참여도와 집중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의 악기연주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악기지도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과 기관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연수와 학습공동체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오케스트라 교육경험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 적극적인 참여, 향후 학습요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최나영, 김성혜, 2017, p.328)는 플루트와 같은 악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음으로써 학교생활과 개인의 정서에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악기지도방안이 더욱 더 전문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6). 2016 방과후학교 현황.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박혜선(2009).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효율적인 음악 학습 지도방안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종모, 서종우(2012). 코다이 교수법의 주요 이념의 해석. 예술교육연구, 10(3), 101-120.
- 임미경 (2004).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천: 예종.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최나영, 김성혜(2017).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입문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교육문화연구. 23(4), 311-332.
- 한국코다이협회. <http://www.kodaly.or.kr>

## 부 록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플루트를 통한 청소년의 악기지도를 함에 있어서 음악의 핵심요소인 리듬의 이해를 통한 악기지도를 하고자 하였다. 음악의 주요요소인 리듬을 이해 한다는 것은 음악의 기초적인 이

해를 도와 연주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음악교육자 코다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플루트 지도에서 리듬학습을 구안하였다. 이는 플루트를 연주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연습이 아니라, 오선악보에 대한 거부감 줄이고 생활 속에서 플루트의 연주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에서 청소년의 플루트 지도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악곡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악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5월까지 약 5주간에 걸쳐 호남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플루트 수업을 하였다. 악기지도의 특성상 다수의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4개 학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보면 리듬음절 활동은 플루트 연주와 악곡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동도법에 대한 내용은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플루트의 지도 방법의 적용은 악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 청소년기 정서적 안정과 음악적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악기활동이 활성화 되어지길 바란다.

교신저자: 조정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E-mail: gloria@chousn.ac.kr

공동저자: 노시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62번길 20

E-mail: shtlwls1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0일